

### 애국심과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에 대한 자부심

- \_ ‘일제로부터 독립’ 자부심 높고, ‘현 사회제도·문화’ 낮아
- \_ 30대보다 20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부심 느껴
- \_ 4060세대 자부심 큰 차이 없고, 여자 2030과 유사
- \_ 보수층, ‘6.25 전쟁 호국’과 ‘경제성장’ 자부심 높아

#### ■ ‘애국심’ 관련 국민의식 분석

- \_ 한국인 애국심,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
- \_ 남자 2030세대, 한국인 애국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 \_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
- \_ 국가·사회적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찬성’ 78%

####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분석

- \_ 북한의 군사적 위협, ‘위험하게 생각한다’
- \_ 향후 북한 군사적 위협 ‘지금과 비슷할 것’
- \_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해법, 강온 의견 팽팽
- \_ 한반도 전쟁 ‘발발 않을 것’ 의견 우세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6월 10일(금) ~ 6월 12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9\%$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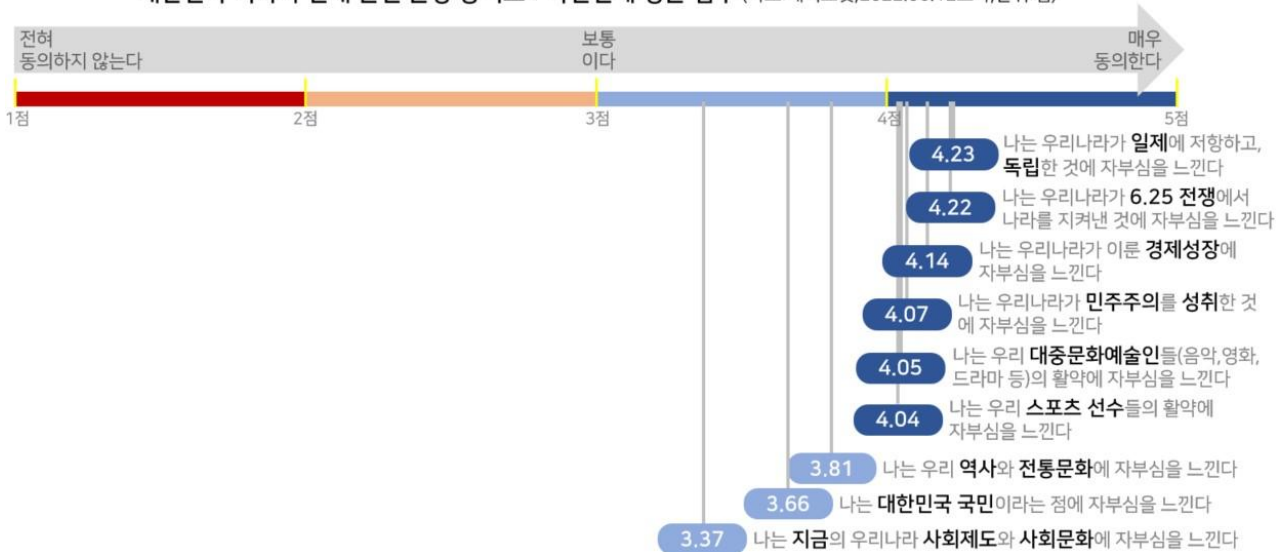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에 대한 자부심

### □ '일제로부터 독립' 자부심 높고, '현 사회제도·문화' 낮아

- 대한민국 역사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일제로부터 독립'인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각 문장에 대한 동의도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까지(매우 동의한다) 응답토록 한 결과임
- '일제로부터 독립'(4.23점)에 이어 근소한 차로 '6.25전쟁 호국'(4.22점)이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경제성장'(4.14점), '민주주의 성취'(4.07점) 순으로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 활약'(4.05점), '스포츠 선수 활약'(4.04점)이 뒤를 이음
- 문장에 대한 동의도, 즉 '자부심'이 가장 낮은 것은 '현 사회제도·문화'(3.37점)이고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3.66점), '역사·전통문화'(3.81점) 순임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관련 문장 동의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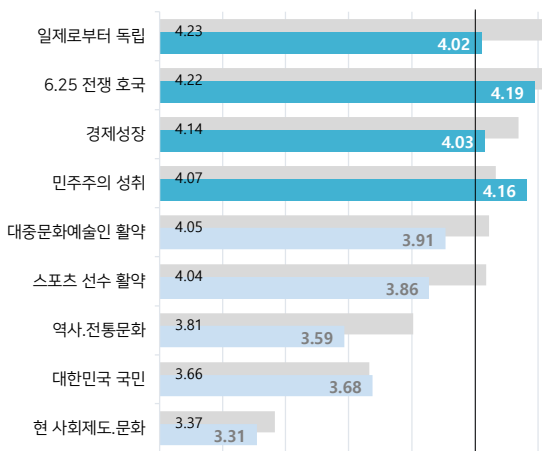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에 대해 '보통'(3점) 이상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냈으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높은 수준(4점 이상)의 자부심을 갖고 있음
  - : 또한 우리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도 4점 이상의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 ☑ 다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사회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3.37점)
  - : 이는 우리사회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념·세대·남녀갈등 등)이 엄존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불만 때문으로 분석됨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66점)를 기록한 것 역시 이러한 우려와 불만의 영향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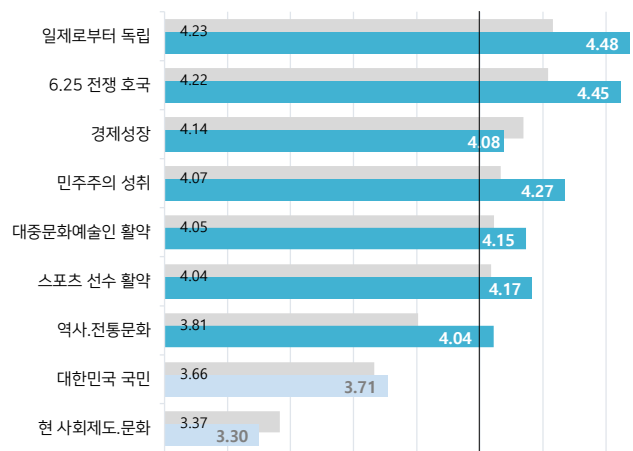
## □ 30대보다 20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부심 느껴

- ‘자부심’ 정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30대보다 20대가 더 자부심을 느끼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균임
  - 검은색 세로 선은 4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낮으면 옅은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평점이 4점 이상을 기록한 문항 수는 20대 여자가 7개로 가장 많고, 30대 남자가 3개로 가장 적음
  - 20대 남자는 4개, 30대 여자는 5개로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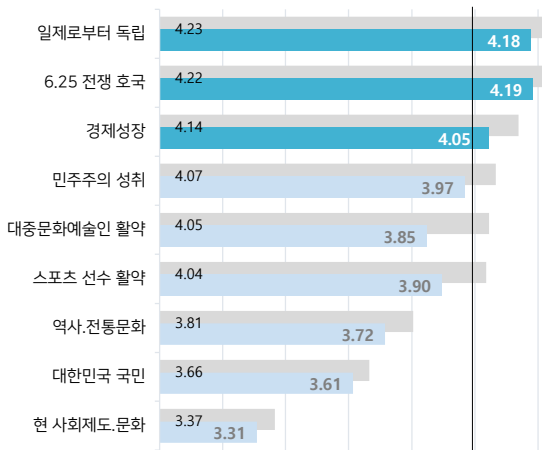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20대 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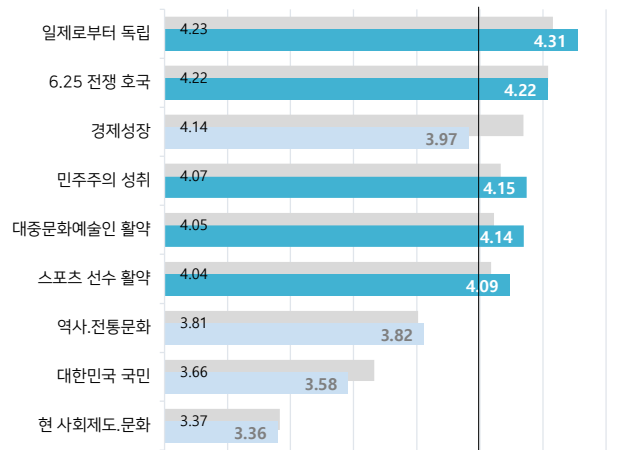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20대 여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30대 남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30대 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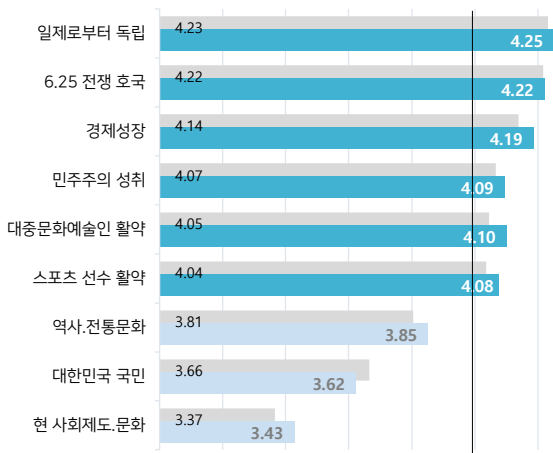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여자 2030세대는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세대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이 주목됨
  - : 여자 2030세대는 각종 사회적 아젠다 이슈 관련 조사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기에 '자부심'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2030세대 전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국민 전체보다 낮은 특징을 보임
  - : 이들 세대의 경우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이자,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부작용('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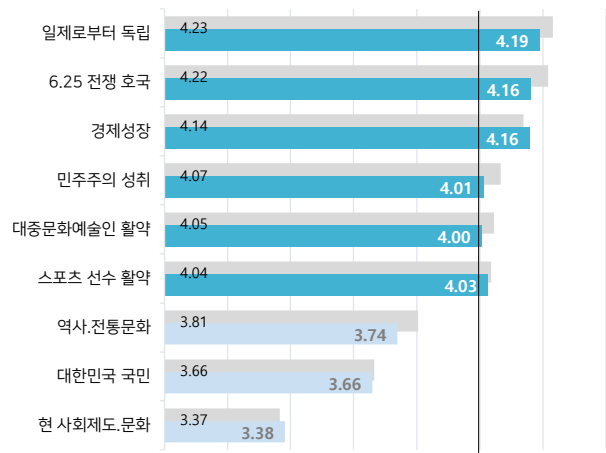
## □ 4060세대 자부심 큰 차이 없고, 여자 2030과 유사

- 4060세대의 '자부심'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균임
  - 검은색 세로 선은 4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낮으면 옅은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4점 이상 평점 문항 수는 4050세대가 6개, 60대 이상은 5개로 다소 다르지만 평점 수준은 비슷함
  - 60대 이상은 '민주주의 성취'에 대해 3.96점을 매겼는데, 50대의 4.01점과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4060세대의 점수는 앞서 여자 2030세대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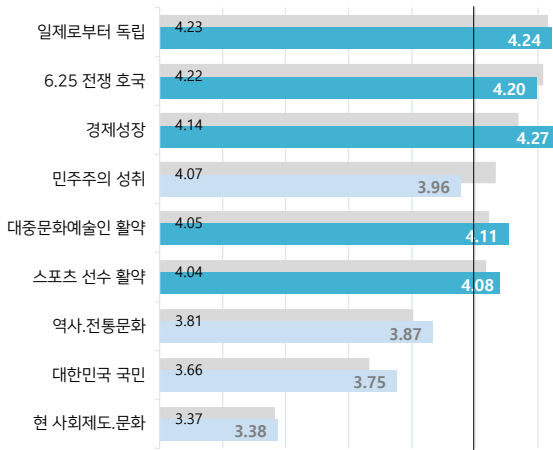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40대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50대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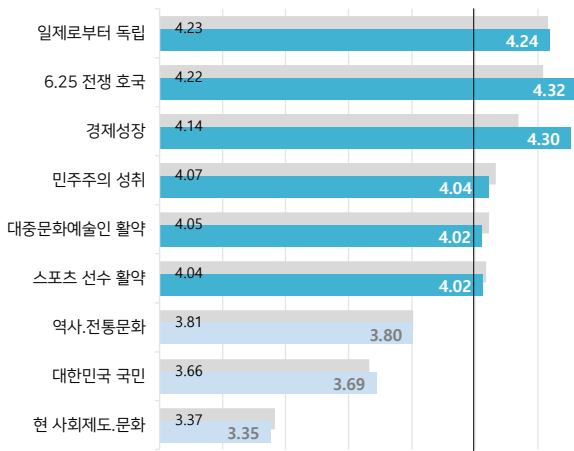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각종 사회 아젠다-이슈 조사에서 4050세대와 60대 이상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역사와 지금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음
  - : 또한 여자 2030세대와 60대이상 간의 차이도 컸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지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점도 특기할 만함
- ☑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 즉, 그동안의 국가사회적 '국민통합' 방향은 현실에 대한 '다른 인식'에 주목하고, 세대·계층간 '사회적 합의'를 추구했지만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왔음
  - : 대한민국 역사와 성과에 대한 '같은 인식'에 주목하고, 세대·계층간 동질감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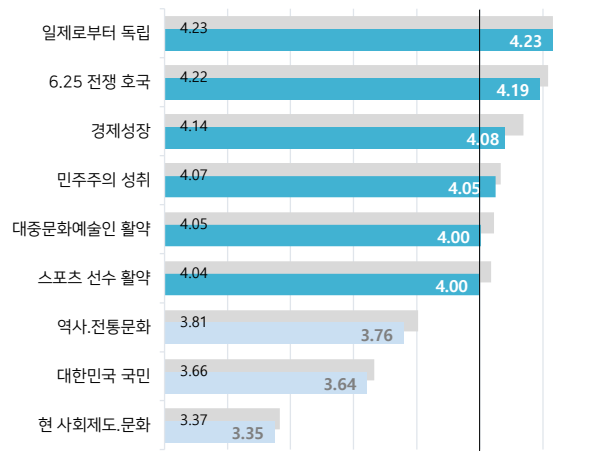
## □ 보수층, '6.25 전쟁 호국'과 '경제성장' 자부심 높아

- '자부심'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검은색 숫자는 국민전체 평균임
  - 검은색 세로 선은 4점 기준선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낮으면 옅은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4점 이상 평점 문항 수는 보수, 중도, 진보층 모두 6개로 동일함
- 다만, 보수층에서 '6.25 전쟁 호국'과 '경제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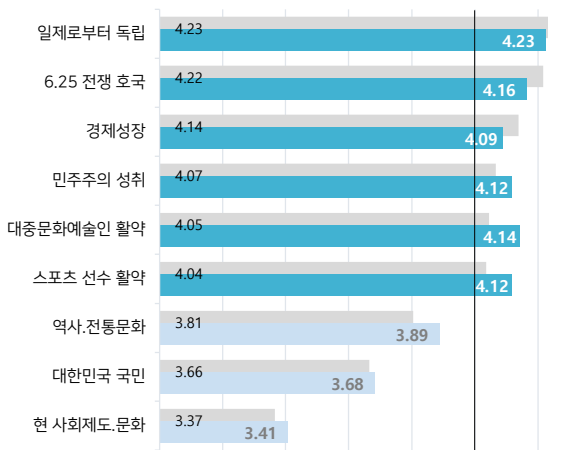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보수층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중도층 (단위:점)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자부심' 정도 : 진보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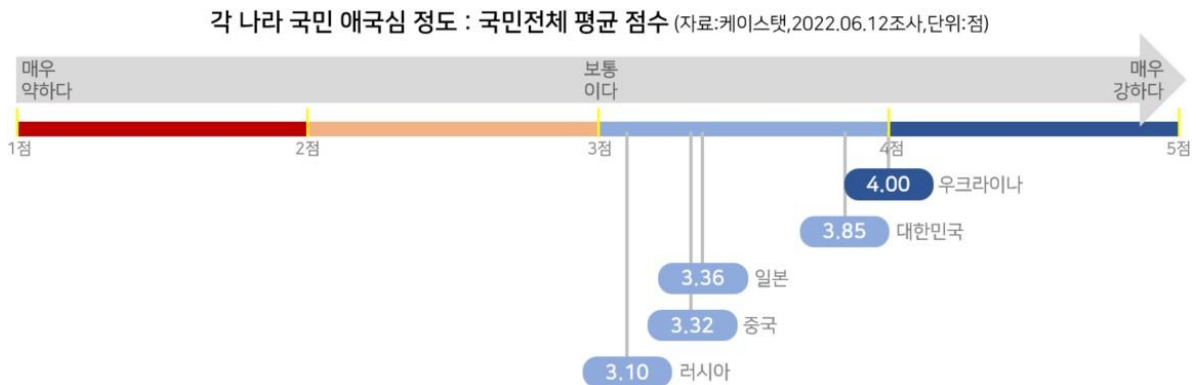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앞서 살펴본 세대별 '자부심' 흐름이 이념성향별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 보수층과 진보층은 각종 사회 아젠다 이슈 조사에서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지만, '자부심'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없음
- ☑ 실질적인 '국민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유·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타당성을 가짐
  - : 이러한 국가사회적 노력은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 ▶ '애국심' 관련 국민의식 분석

### □ 한국인 애국심,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

-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김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각 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각 나라에 대한 동의도를 1점(매우 약하다)에서 5점까지(매우 강하다) 응답토록 한 결과임
- 러시아 침공에 맞서 결연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4.00점의 '애국심'을 매겼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점수(3.85점)를 매김
- 또한 러시아 국민의 애국심은 3.10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으며,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함(각각 3.32점, 3.3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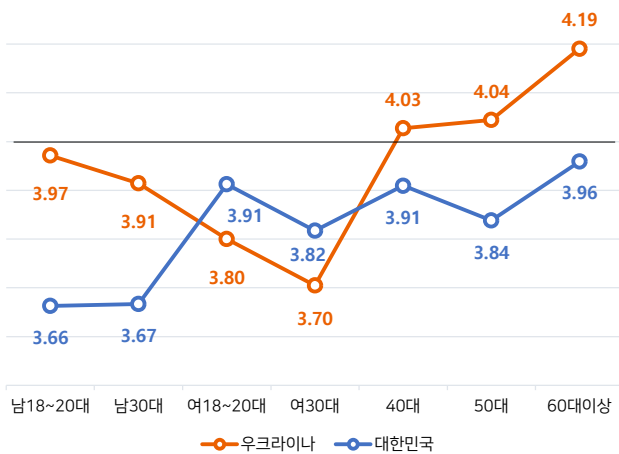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을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높은 애국심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이 우크라이나 국민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 : 이에 비해 일본, 중국 국민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일본, 중국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 참고로 일본인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애국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로 높은 수준임
  - : 다음으로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39%, '약하다' 9% 등임(자료, 일본 내각부, 2022년 3월 발표)
- ☑ 중국인의 애국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결과는 없지만, 간접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애국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임
  - : "현 정치체도가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중국인 중 69%가 '그렇다'고 응답함
  - : 같은 질문에 다른 국가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스웨덴 31%, 한국 21%에 불과했음(자료, 입소스글로벌, 2019년 11월 조사결과)
  - : 또한 중국인의 중앙정부 만족도는 95%에 달하고 있음(자료, 하버드대 조사,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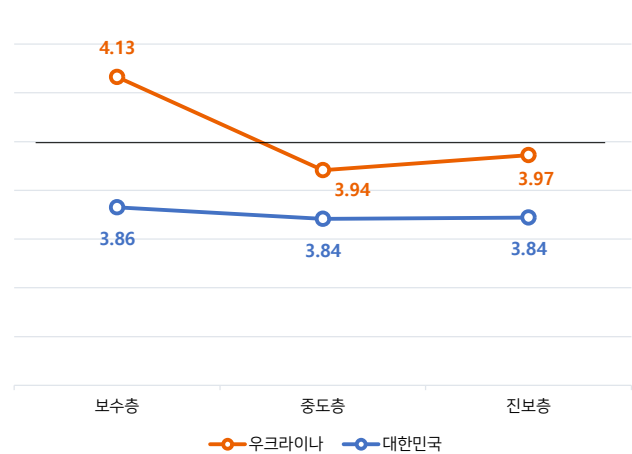
## □ 남자 2030세대, 한국인 애국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 애국심 평점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에 대해 여자 2030세대와 4060세대는 3.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매김
  - 특히 여자 2030세대는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이 더 높다고 평가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4점 기준선임
- 이에 비해 남자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김(20대 남자 3.66점, 30대 남자 3.67점)
  -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이 낮다고 평가함
- 이념별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에 대한 점수가 거의 비슷함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이 대한민국 국민 애국심보다 높다고 생각함
  - 특히 보수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을 매우 높게 평가함(4.13점)

애국심 정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점)



애국심 정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점)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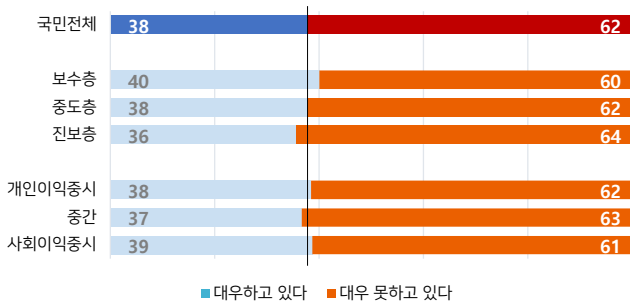
- ☑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정도 평가와 앞서 ‘자부심’ 평가 흐름이 유사함
  - : 앞서 ‘자부심’ 평가에 있어 여자 2030세대와 4060세대의 평점이 비슷하고, 남자 2030세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평가에서도 같은 양상임
  - :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에 대한 ‘자부심’이 ‘애국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자부심’ 평가가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별 차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평가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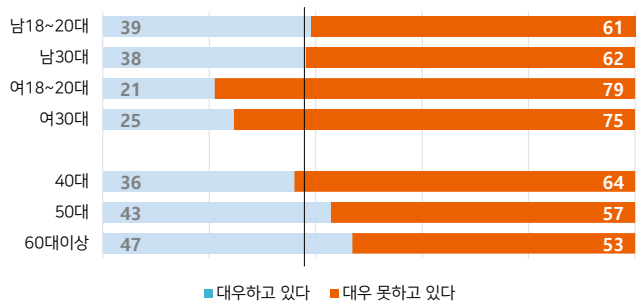
## □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

-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헌신하거나,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사회가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거나,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 국가·사회가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국민 중 62%가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우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권 △학생 등임
- '대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60세대 △호남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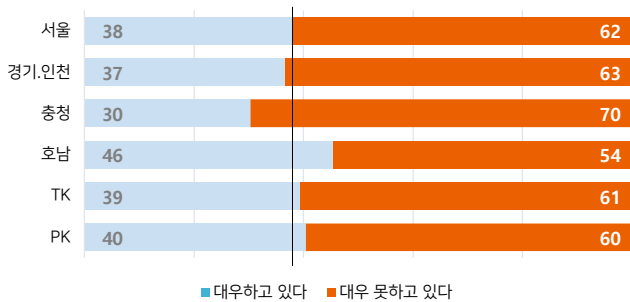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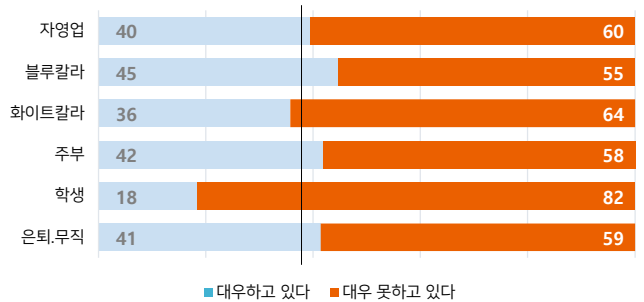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 여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국가헌신,국위선양자 대우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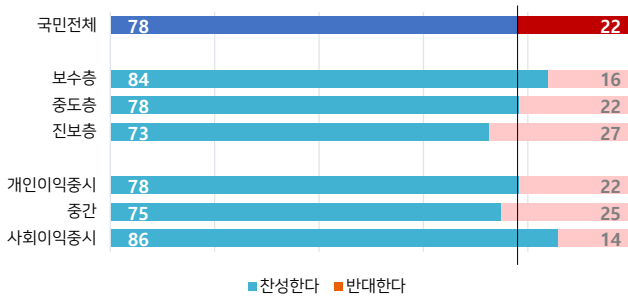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거나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우 여부 여론이 세대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
  - : 2040세대는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 5060세대는 '대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이러한 이유는 '국가헌신·국위선양'에 대한 역사적 경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과거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은 '국가헌신·국위선양'을 정권 안정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으며, 이를 경험한 5060세대는 '국가헌신·국위선양'에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 이와 달리 2040세대는 순수한 애국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여자 2030세대에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데는, 'BTS 병역특례' 이슈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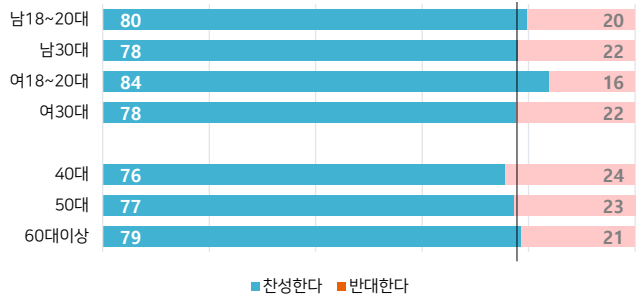
## □ 국가·사회적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찬성' 78%

- 국민 다수는 국가·사회적으로 애국심을 높이는 행사나 문화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국가적으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일과 행사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사회적으로 애국심을 높이는 행사나 문화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국가·사회적 행사나 문화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78%이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PK △은퇴·무직자 등임
-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진보층 △호남 △자영업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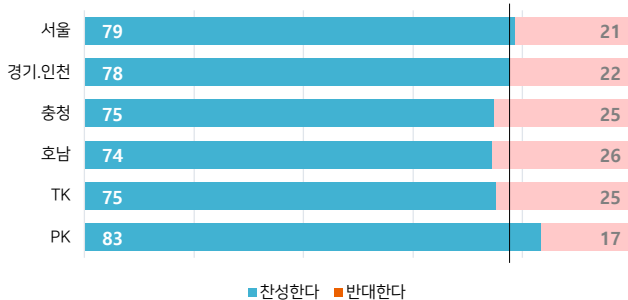
국가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주장 평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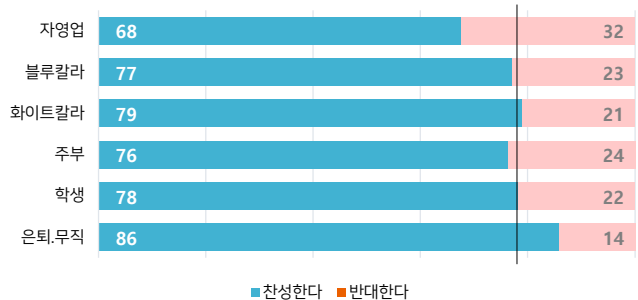
국가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주장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국가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주장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국가 차원 애국심 고양 강화 주장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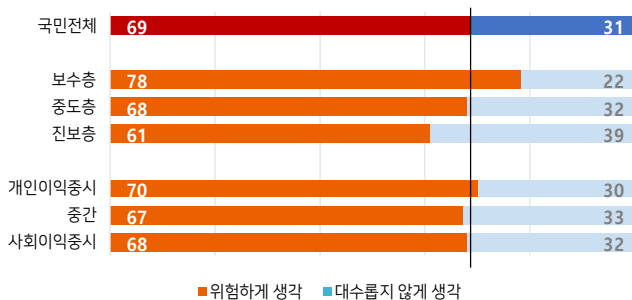
- ☑ 국민들은 국가·사회적으로 국가헌신·국위선양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애국심을 높이는 행사나 문화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 이러한 생각은 2030 젊은 세대에서 특히 강한 특징을 보임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헌신·국위선양’, 그리고 ‘국가주도 애국심 강화’ 등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악용함에 따라 순수성이 훼손되었으며,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다소 거리를 둔 아젠다였음
  -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심 강화 정책에 소극적이었음
- ☑ 하지만 지금의 국민 여론은 국가 주도의 애국심 강화 정책에 긍정적인임
  - :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역사와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체험·공감하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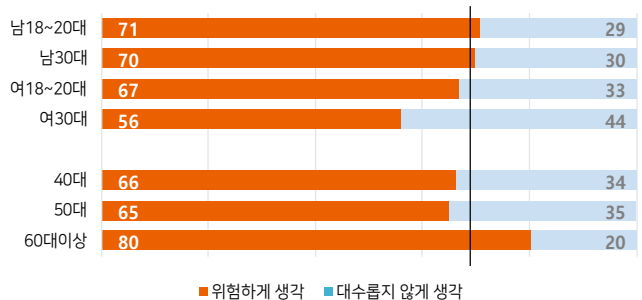
### 북한의 군사적 위협, '위험하게 생각한다'

- 국민 중 69%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31%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60대 이상 △학생 등임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진보층 △여자 30대 △호남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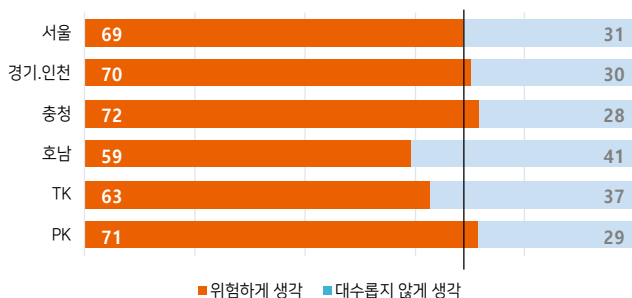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의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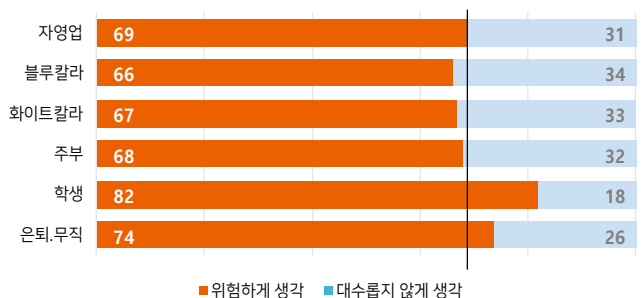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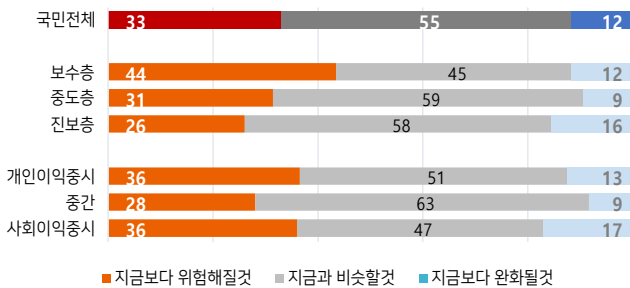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 여론은 논란의 여지 없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강도는 세대별로 차이를 나타냄
  - : 남자 2030세대와 60대 이상은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고, 여자 2030세대와 4050세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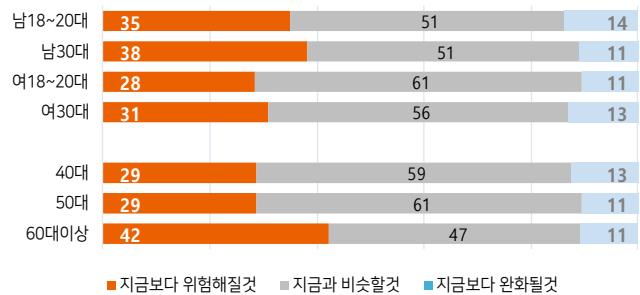
## □ 향후 북한 군사적 위협 '지금과 비슷할 것'

-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에 대해 국민 중 55%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앞으로 10년을 전망할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3%이고,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보수층 △남자 30대 △60대 이상 △충청, PK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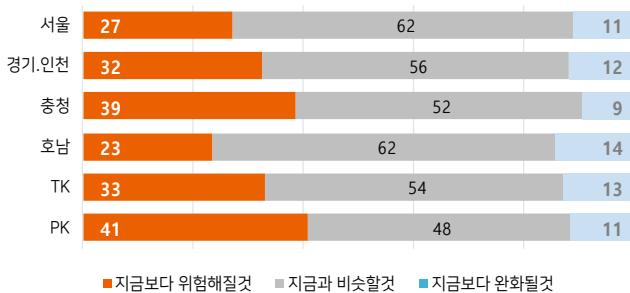
향후 10년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전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의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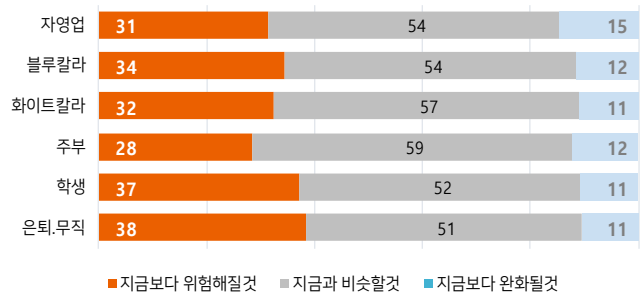
향후 10년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전망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향후 10년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향후 10년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6.12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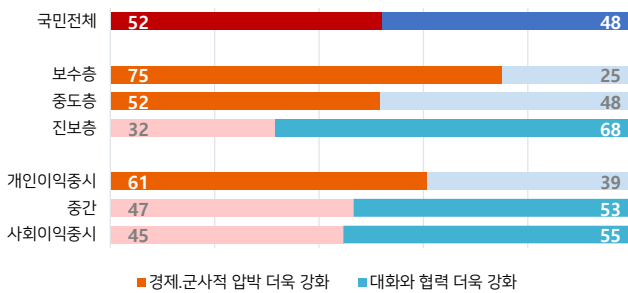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특히 핵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군사적 위협 수준이 높아 지기를 원치 않는 기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언론보도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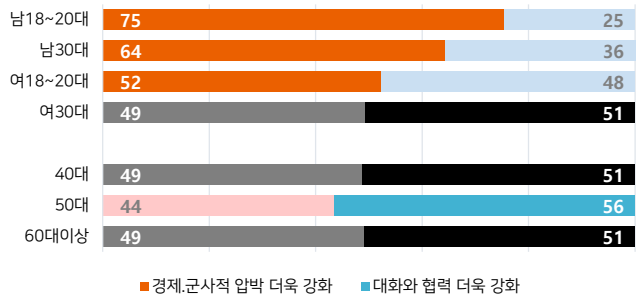
## □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해법, 강은 의견 팽팽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2%)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8%)이 팽팽함
  - “선생님께서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우세한 응답이 다른데, 먼저 ‘경제·군사적 압박 더욱 강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서울, 경기.인천, 충청, TK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대화와 협력 더욱 강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중간층 △50대 △호남 △자영업, 주부 등임
- ‘경제·군사적 압박 더욱 강화’와 ‘대화와 협력 더욱 강화’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여자 30대 △40대, 60대 이상 △P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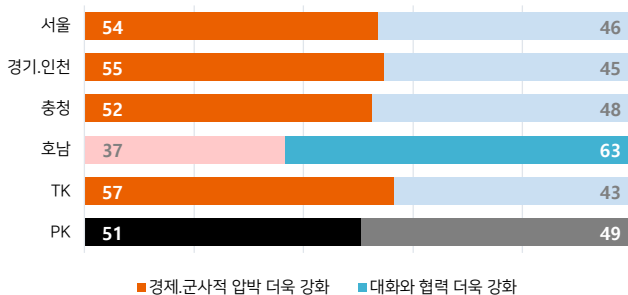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위한 우리나라 방향성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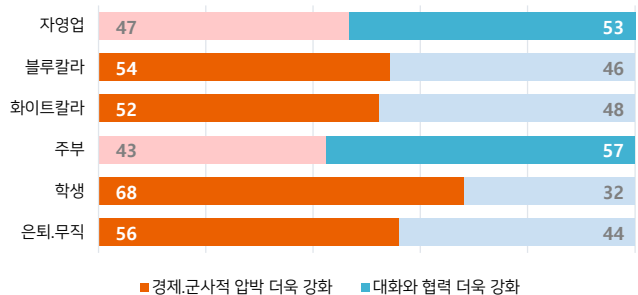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위한 우리나라 방향성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위한 우리나라 방향성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기 위한 우리나라 방향성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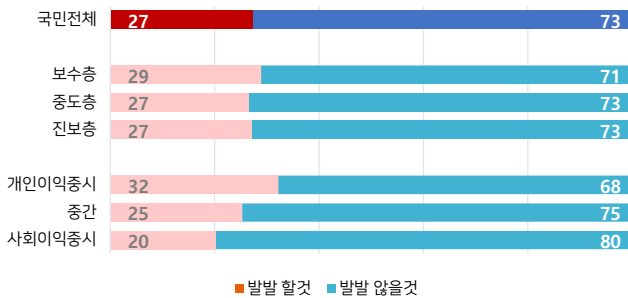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역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기 위해 강경책과 유화책 모두를 사용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지 못했음
  - :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정책, 즉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함
- ☑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후 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간 의견대립이 예상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보수 vs 진보 대립과 다른 양상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함
  - : 즉, 남자 2030세대의 강경한 의견, 그리고 여자 2030세대의 유동성이 새로운 여론지형의 동력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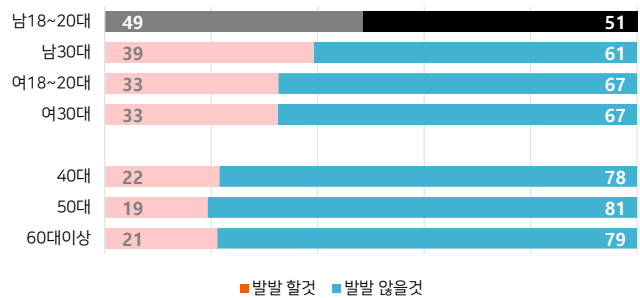
## □ 한반도 전쟁 '발발 않을 것' 의견 우세

- 우리 국민들은 향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함
- 국민 중 73%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발발할 것'이라는 의견은 27%에 그침
  -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25년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사회이익 중시층 △4060세대 △주부 등임
- '발발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개인이익 중시층 △2030세대 △블루칼라, 학생 등임
  - 특히 남자 18~20대와 학생층은 '발발할 것'과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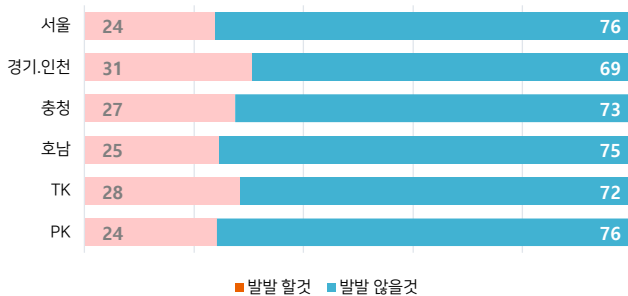
향후 25년 내 한반도 전쟁가능성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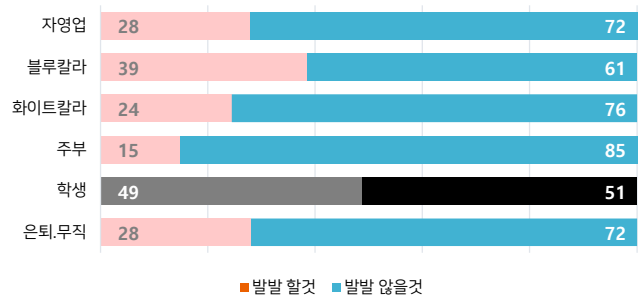
향후 25년 내 한반도 전쟁가능성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향후 25년 내 한반도 전쟁가능성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향후 25년 내 한반도 전쟁가능성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6.12조사,단위:%)



### Kstat Point

- ☑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의견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세대별 차이는 다소 존재함
- ☑ 4060세대는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데 비해,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음
  - : 특히 남자 18~20대는 '발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49%에 달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 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기존의 보수 vs 진보와 다른 새로운 세대갈등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 보수 vs 진보 축이 유지되더라도 세대와 직업 구성 등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5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3호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호감도·중요성 인식 분석』이라는 주제로 6월 30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6월 사회지표는 6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